

###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 조선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주제37(1948)년 10월 7일 이후 남조선에서 넘어와 립시로 판에서 생활하고있던 무림소장 리국로선생의 가족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차례지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그의 가족을 찾아주시었다. 친히 너무도 황송하여 큰절을 올리는 리국로선생의 부인을 만류하시며 수령님께서는 따듯이 인사를 하시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간 안녕 하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국로선생의 가족이 38° 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에야 시간을 뱉었다고 하시면서 좁은 리관방에서 많은 식구가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장군님의 덕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니 더욱이 행복하여 불편한줄 모르겠습니다.》

《려관아아 김소들이 하루밤 독어가는 곳인데 려관방에서 살림하러니 불편한 점이 많을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그들의 생활을 방해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남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어찌된 그리도 살들하고 다 심하십니까?)

리국로선생의 부인은 남조선에 있을 때부터 삼도왜적을 벌벌 떨게 하시는 백두산장수에

대한 전설같은 소문을 들으면서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실까 하는 호모의 정을 간직하고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보니 첫 순간에 벌써 매혹되어 절로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고도 방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관아 주로 외국인들을 취급하기때문에 생활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겠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선생의 부인은 다른것은 없는데 다만 아이들이 서양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었다.

《서양음식이러니. 그래 빵식사를 합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놀라와 하시면서 아무리 외국인들을 대상한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리관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겐 서양음식을 주는것을 보면 한심한 사람이라고 나무람하시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식이 구미에 맞고 침대보다 따뜻한 온돌방이 더 좋습니다. 자기것을 무시하고 남의것만 다 좋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민족성까지 저버릴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리국로선생의 부인에게 참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실 오랜 선비가정에서 자란 그는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이 쏘련으로 생활한다는 반동들의 악선전을 들을 때마다 우려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며 그의 마음속 우려를 깨끗이 가져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격정에 휩싸여있는 그에게 오늘 저녁부터 조선음식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집은 인촌해결해드린다고, 예로되는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라고 다정히 이르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바래워드린 리국로선생의 부인은 받아들인 충격이 하도 커서 오래동안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지활동을 하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며 제노라는 술한 정치가들을 보아온 그가 세상에 다시없을 절세의 위인을 뵈었기때문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도 겨례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본시기자 박주혁

## 이역의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역센 신념

오늘 총련의 일군들과 제일 동포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이역의 참바람속에서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나아가는 이들의 자랑찬 모습에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고향으로 모시는 역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서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이 비껴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연합체력이 사회주의체제를 력사무대에서 매장해버릴 야망을 품고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던 1990년대초엽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제 81(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온 리친규제1부장(당시)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조선인총합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이 접할수록 더욱 강인한 힘으로 일머리 정열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 승리에 승리를 떨치고있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

과 반동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회로 하여 공격의 화살을 우리 나라에 집중하고 사면팔방으로 공세를 들이치지만 우리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평활한 전략전술로 반혁명적 공세에 혁명적공세로 맞서나감으로써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놈들의 온갖 책동을 저지파라시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 두터워졌으며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수령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총성과 효성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며 여기에 우리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조국이 그토록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는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는 총련총합단 성원들의 마음을 짝 사로잡았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지난 기간 간고분투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튼튼히 세워놓았기때문에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미 튼튼히 뿌리를 내린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완성해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시며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가운데는 천리길과 10리길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주제83(1994)년 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총련총합단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업무를 완성하자면 천리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10리밖에 가지 못하였다고, 그러나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기에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들이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도 승리를 굳게 확신하며 조국의 힘찬 전진과 발을 맞추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최진욱

자신께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좋아하는것은 바로 이 노래에 조신의 기상과 조선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의지와 신념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조선혁명가들의 영원한 신념과 의지의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진정 여기에는 뜻을 멀리 내다보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업무를 완성하자면 천리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10리밖에 가지 못하였다고, 그러나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기에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들이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도 승리를 굳게 확신하며 조국의 힘찬 전진과 발을 맞추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최진욱



도교에서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봄향기》중에서 (2021년 4월)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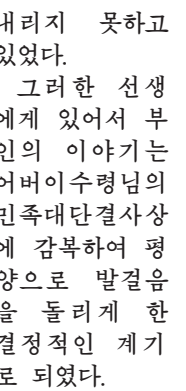
##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2)

들모두의 가슴을 열어주시며 소박한 애국의 넋도 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러한 선생에게 있어서 부인의 이야기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복하여 평양으로 발걸음을 돌려게 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그는 마침내 《나는 왜 북조선을 방문한건가》라는 출판명령을 발표하고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고향을 떠나 40여년만에 공화국을 방문한 선생은 그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뵈는 순간 립창영선생은 회색의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그의 비범한 품모와 자질, 소탈하신 친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림창영선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입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라고 자기의 마음속결의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복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본시기자 전영민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선생과 같이 년세가 높으시고 민주운동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분이 미국땅에서 자신을 도와주겠다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었다.

림창영선생은 그 믿음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력이나마 보태어 주석님을 도와 생각입니다. 나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학식이나 덕행이 높아 스승으로 뵈만한 사람)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는 날까지 애진하겠습니다. 다라고 자기의 마음속결의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빛바래 인생교복에 이른 립창영선생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넋이 푸르게 자라고있었다.

본시기자 전영민

#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울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역적패당은 미국 주도의 유엔《북인권결의안》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해서있고 있는가 하면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를 통한 반공화국 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인권소레기들을 비롯한 모략군들을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적극 부추기고있고 《북인권결의안》의 조속한 결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벌려놓았으며 《북인권현황보고서》를 발간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성에 먹칠을 하고 국제무대에서 거덜이 난 반공화국적대결분위기를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정치가 펼쳐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의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애당초 존재할수도 없다.

시책은 해당 나라와 사회의 성격에 비추어서 추도이다. 어떤 시책을 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해나가는가에 따라 해당 사회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결

정되게 된다. 공화국의 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실히 보장해주는 인민적시책이며 그 모든 시책들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워지고 철저히 실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안는 혜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품어안는 하늘같은 그 은덕이 꽃피워준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날로 높이 울려 퍼지는 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불구하고 그 무슨 《북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밝은 빛을 뿌리는 태양도 검다고 하는것과 같은 생색이고 허황한 날조로서 역적패당이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것을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집안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가리워려는 흑백전도의 가련한 추태이다.

사실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이다.

남조선 각계층의 절규와 류형어들을 높고서도 남조선의 인권실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잘 알수 있다.

《월(조선)조선》, 《지옥불반도》, 《내 집마련의 꿈》, 《물가를 잡아달라》, 《이

심대는 태반이 백수》, 《졸업은 곧 실업》,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집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 삶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생이 고달랐으면 자기가 사는 땅을 《지옥》이라고 저주하고있겠는가. 생의 막바지에서 해마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남조선을 가리켜 《자살공화국》, 《자살왕국》이라고 부를수 있는가.

이처럼 남조선을 암흑사회, 인간생지옥으로 만든자들이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허바닥에 울리고있는것이야말로 파렴치,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인권문제》에 대해 울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인민들을 《실치류》, 《먹여만 죽면 되는 개, 돼지》라고 모독하는자들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자체가 정의와 량심,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울수 없는 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아무리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미쳐날뛰어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만드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가리울수도, 먹칠할수도 없다.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오히려 극악한 대결광신자, 추악한 위선자, 흉악한 인권말살자인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세상에 더욱 날암이 드러낼뿐이다.

주우성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11)

## 총 환방 쓰시 않고 승리한 공중로우선

2003년 3월 4일 이 땅에 울리는 전쟁의 포성이런듯 미국과 남조선의 《특수리》합동군사연습이 개시되었다. 이날 미국방성대변인은 공화국에 대한 《신체공격》을 노린 장거리전투목적기 24대가 태평양상의 팔도도 이동하고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더 많은 미군 무력을 전진배치할데 대한 명령이 떨어졌음을 밝혔다.

은 남조선방위 전시에나 볼수 있는 평음으로 진동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짙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인 3월 5일 조선인민군의 어느날 비행장에서 대기를 헤가르며 여러대의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상공을 침범한 미국의 전차출격기 《RC-135》를 맞받아 총격한것이다.

미국은 이해의 2월 21일부터 연속 4일간에 걸쳐 이 정찰기를 9시경부터 무려 10여시간 무수단으로부터 원산만까지사이의 동쪽 공화국령해상공에 불법침입하여 반복 비행시면서 동해안일대의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2월 24일에는 해외기지에서 리북한 《RC-135》정찰기가 공중에서 《KC-135》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탐행위에 광분하였다. 하루강까지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RC-135》정찰기의 거듭되는 공중정탐행위에 치우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절전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만단의 전투대세를 갖추고있던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리북한지 얼마 안되어 공화국령해상공에서 미군의 전차정찰기 《RC-135》를 포격하였다.

《RC-135》정찰기는 《보인-707》를 개작하여 만든 최첨단전자 및 광학정찰기제로 1 000여km까지의 상대속 중심을 정찰하는 간첩비행기였다. 17명의 미군정보요원들이 항시적으로 타고있는 《RC-135》정찰기는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활동을 목적으로 출격하는 일본의 오기나와섬에 있는 가테나공군기지에 도착한 비행기였다.

이날 미군정찰기는 조선동해상공에서 공화국의 군사대상물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하려고 날아들어왔던것이다. 정시훈련을 통하여 목적의 슬기와 용맹을 키워온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공화국의 신성한 령공에 침입한 적비행기의 꼬리를 바짝 물고 추적하다가 대담하게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기절

초공격 하였다.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이 단방에 좌멸기를 위한 조준대세를 갖추고 맹렬히 추격하자 절절한 미군정찰기는 더는 정탐행위를 하지 못하고 급선회하여 일본의 가테나공군기지로 쫓겨나 버렸다. 적들은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공포에 질려 어쩔 수 없이 북조선비행기가 발견되자 겁고 정찰기가가이어서 접근하지도 못한것이다. 그대로 조미대결에서의 승자가 누구이며 강자가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준 산 증거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공중조우전이 있는 후 인민군지휘원들에게 이번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침략군정찰기를 꺾어버림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다시한번 떨쳤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세상은 이 조미간의 순간적인 조우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어떤 현대적인 비행기나 군사장비들도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생생한 화적으로 확인하였다.

본시기자 박철남

번 비행기추적사건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오직 북조선만이 미국에 타격을 하고있다.》라고 평하였다.

미군정찰기 《RC-135》사건은 명백히 공화국무력과 미국무력과의 직접적이며 전면적인 대결전이었다.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파렴치하고 오만한 미국의 무력과 맞서 한발 날리지 않고 단 환방의 조준시도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였으며 도주하게 만들었다.

2003년 봄 조미간의 공중조우전의 결과는 그대로 조미대결에서의 승자가 누구이며 강자가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준 산 증거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공중조우전이 있는 후 인민군지휘원들에게 이번엔 우리 추격기비행사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침략군정찰기를 꺾어버림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다시한번 떨쳤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세상은 이 조미간의 순간적인 조우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어떤 현대적인 비행기나 군사장비들도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생생한 화적으로 확인하였다.

본시기자 박철남

##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굴욕외교 중단하라》

###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장—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종속적으로 처리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면서 굴욕외교를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년전 남조선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언급하고 《윤석열(정권)의 일제과거사 종속해결과 남조선일본, 남조선미국일본군사협력유지금이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윤석열역적당이 과거사문제를 회피해서 일본의 립장을 따르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수상과의 《락시회담》이라는것을 열고 《한》일관계의 조속한 해

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오는것은 《태일굴욕외교의 극치》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근 역적패당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일관한 배상공을 대안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맞게 종속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치

외교)의 미명하에 일본의 죄를 덮어버리려는 윤석열(정권)의 태일굴욕외교는 단호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시기자



강제동원 대법원판결4년, 윤석열 정부 대법원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